



## 혁신의 물결 속에 KCID 미래를 담아!



이 봉 훈

한국관개배수위원회 회장  
국제관개배수위원회 부회장  
bhlee00@gmail.com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 매서운 바람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겨울을 보내고 봄맛이를 나선 것이 바로 어제 인 듯 한데 어느덧 불볕 더위의 계절에 다다랐습니다. 여름의 열기는 흡사 삶에의 열정과 애착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2015년 이래 우리 위원회는 기존 업무에 더하여 숨가쁘게 변모하는 국제 환경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국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KCID를 혁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그간 다소 침체되었던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본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한 것이 그 주요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개최된 66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우간다와 미얀마 등 3인을 지원하여 ICID 국제행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 해에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4월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4차 아프리카지역회의 및 훈련 프로그램에 아프리카 2인을 지원하는 등 이집트 관개배수위원회(ENCID)가 주최한 국제행사에서 중심역할을 이어나갔습니다. 최근 ICID는 본부의 노후화와 독일의 탈퇴 등 유럽 위원회의 미진한 참여로 창립이래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KCID와의 교류·협력과 지원강화는 ICID가 조직을 개편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개배수분야의 해외사업 진출 및 확장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사업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관협력(PPP) 사업은 관개배수를 포함한 농업 및 농촌개발 수요가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망하므로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간다 음플로고마 강 유역 농업개발 PPP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해 9월 3주 동안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와 영농, 축산, RPC, 전력, 농기계, 토목 등 민간기업이 함께 현지조사 및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서로 올해 1월 우간다를 방문하여 장관급 회의에서 양국 농업분야 협력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우간다 PPP 사업을 선례로 저희 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건설, 영농, 유통, 신재생 에너지 등 국내 민간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CID는 고령화로 침체된 ICID 본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국가위원회로서, 경제불황 여파로 운영위기에 처한 유럽 각 국가위원회의 롤모델 국가위원회를 지향하여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유연하게 적응하고자 조직 전반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ICID의 현 조직체계와 분과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ICID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KCID 회원 여러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간에 KCID는 ICID와는 별개로 국내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 결과 관개배수, 기후변화 등 물 관련 국제 동향을 등한시하고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관심을 끄는데도 한계를 보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KCID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따라 개편한 KCID 기술정보지 <세계농업과 물>은 회원 여러분께 내실 있는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